



Music: 내일은해가뜬다

## [강추강추] 벗은 좀 잘못해도 벗이다

몽골 징키즈칸  
(1162~1227)은  
매사냥을 즐기고

어깨에  
앉아 있는 매를  
항상 친구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어느 날  
바위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마시려는데  
매가 종지를  
엮질렀다.

몹시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려고 하면  
매가 계속 엮질렀다.

일국의 칸(Khan,)
지배자이며,

부하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만 하면
매가 계속해서
엎질러 버리니
매우 화가 났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 버리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또 엎지르자 결국 칼로
매를 베어 죽였다.

그리고 일어나서
바위 위로 올라가
물속을 보니

물속에 맹독사가
내장이 터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그 물을
먹었더라면 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매는 그것을 알고
물을 엎어 버렸던
것이다.



그는 친구(=매)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고  
매를 가지고 돌아와  
금으로 동상을 만들고  
한쪽 날개에

"분개하여  
판단하면 반드시  
패하리라."

또 다른 날개에는  
"좀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벗은 벗이다."라고  
새겨 넣었다고  
라고 한다.

혹시  
사소한 오해로  
친구들과 불편하게  
지내지는 않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를 내어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었는지?

모든 일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다  
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며,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 하자.

매 날개 적힌 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 좋은 글 중에서 □





우리 벗님들~!  
健康조심하시고  
親舊들 만나  
茶 한잔 (소주 한잔) 나누시는  
餘裕롭고 幸福한  
나날 되세요~^

